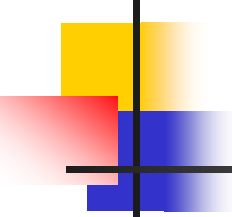


“개의 개다움(Dogness)의 의미 탐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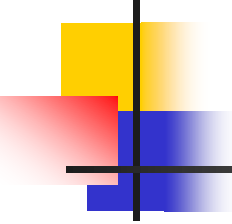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- 박 동섭
- littleegan@gmail.com



“개의 본성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?”

- 뜬금없이 “어디에?”라는 말이 나와서 좀 그럴지만 여하튼 물음을 던져보자.
- 그 물음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[개]의 [개다움]은 어디에 기인하는 가를 알고 싶은 의도가 깔려 있다.
- 여러분의 생각은?
- 그 물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아마도 ‘아주 사람을 잘 따르는 것’, ‘머리가 좋아서 여러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것’, ‘짚을 수 있는 것’ ‘고양이를 쫓는 것’, ‘반가우면 꼬리를 흔드는 것’ 등등이 될 것이다.

“개의 본성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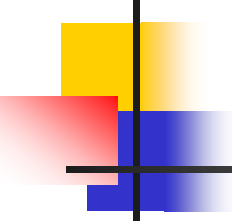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-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물음을 던져 보면 틀림없이 개는 태어날 때부터 ‘그렇다’라는 대답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아올 것임에 틀림없다.

“개의 본성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?”

- 그들 중의 몇몇은 ‘본능이기 때문에’라든지 ‘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든지’ ‘DNA’와 같은 과학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다.
- 그런데 이런 대답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.
- 왜 그럴까요?
- 왜냐하면 ‘개는 왜 개인가?’ ‘개이기 때문에’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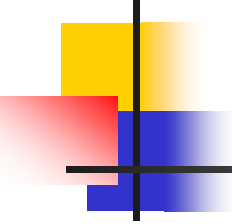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“개의 본성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?”

- 베이트슨(Bateson)은 ‘본능’이라는 개념을 일종의 ‘설명원리’라고 보고, ‘어떤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만두자 라는 과학자끼리의 결정 혹은 합의’라고 정의하고 있다.
- 즉, 그것은 ‘단지 설명의 끝이라는 표시를 해두는 것’에 불과한 것이다.
- 여기서의 ‘과학자의 결정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개다움은 원래 개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관점을 내포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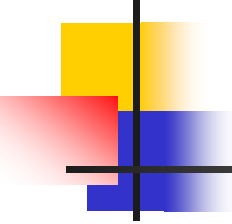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유전인가? 환경인가?

- ‘유전인가 환경인가’의 문제는 말을 바꾸면, 그 개체의 본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? 생득적(innate)인가 후의 습득(acquired)인가와 같은 물음이다.
-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
- 그러나 생득이든지 획득이든지 이 설명은 ‘본성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’라는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에는 양자의 입장은 다를 바가 없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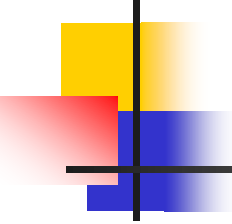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유전인가? 환경인가?

- 생득적인가 획득인가 즉 본성이[어디에서 오는 것일까?]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지견이 축적되어 왔지만 그 생체를 그 생체다움으로 하는 본성의 소재지는 변함없이 개체 속에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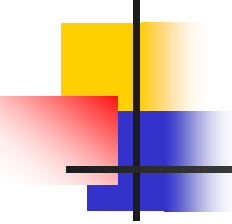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유전인가? 환경인가?

- 문화심리학자 스웨더(Shweder)는 개체 속에 갇추어져 있고, 그 개체의 여러 기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전제로서 들고 [생득적 중앙처리 기구-inherent central processing mechanism]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였다.



심리학의 가장 뿌리깊은 대전제는?

- 심리학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, 여기서의 물음으로 돌아와 보면 ‘개’가 ‘개’인 것은 이러한 개인, 개체내부의 처리기구(메커니즘)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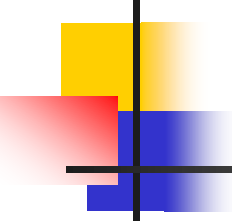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

심리학의 가장 뿌리깊은 대전제는?

- 생체의 중심에 그 생체의 행동방식을 컨트롤하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상식과도 같은 것이다.
- Personal computer 속의 CPU(중앙처리장치)가 있는 것처럼 생체 속에도 그러한 장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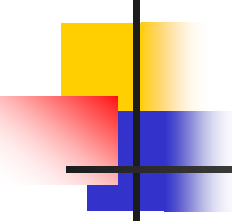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화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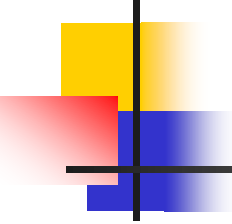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사람이 만든 계단을 내려가는 개(사람이 만든 끈을 통해서 컨트롤 되는)를 떠올려 보자 이 개는 생후 3개월 정도의 강아지였을 때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없었다.
- 몸이 작은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계단 그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이었던 것 같다.
- 그런데 생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가볍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있게 되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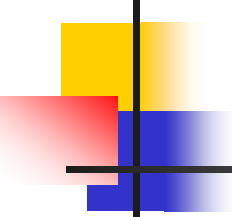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이 개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물음을 던져 보자!
-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는 개의 본성인가?
- 여러분 생각은?
- 계단은 유럽의 경우 기원전 300년부터 400년 정도 전에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·역사적 인공물 (artifacts)이고 당연히 개와 개의 선조에 해당하는 생물이 사는 자연환경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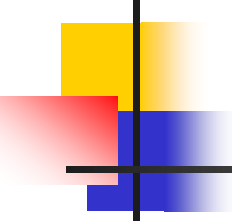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사실상 개가 계단을 내려가는 행위는 개 단독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.
- 그건 계단이라는 인공물(Artifact)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성립 가능한 행위이다.
- 이러한 계단이라는 인공물을 염두에 두게 되면 개가 계단을 향해 다리를 뻗어 내려가는 자세는 개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본질 혹은 실재하는 것인가? 라는 물음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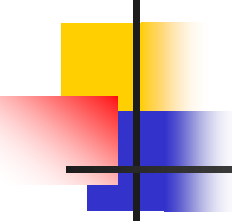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물론 자연의 지형 속에서 본다면 사회.역사적인 인공물인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자세를 개에게 요구하는 지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.
- 그러나 개가 계단을 내려 갈 때의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리듬은 어떤가?
- 반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 갈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이 리듬은 개의 보행에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일까?
- 이 리듬은 계단이라는 규칙적인 스텝을 가진 인공물이 계단을 내려 갈 때의 개의 신체의 자유낙하를 규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야 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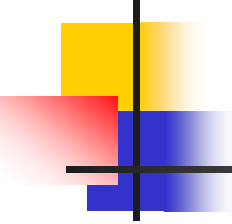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계단을 내려 갈 때의 속도를 보기로 하자.
- 개의 스피드는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.
- 그러나 이 일정한 스피드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개 본래의 몸 생김새와 계단이라는 인공물뿐만 아니다.
-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인공물이 일정한 속도를 만들고 있다. 개에게 부착되어 있는 끈은 사람과 개를 연결하는 소박한 장치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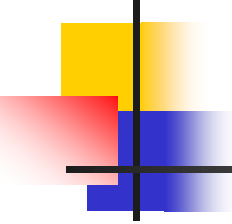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그것은 물리적으로 사람과 개를 연결한다.
- 개는 물리적으로 끈의 길이를 반경으로 하는 원을 넘을 수 없다.
- 즉, 사람의 속도를 넘어서 이동하는 것이 제약된다.
- 이것은 개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고 또한 그 존재를 사회적, 문화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- 나는 혹여 이런 눈에 보이는 끈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나의 생각과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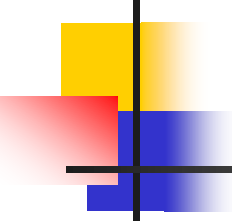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계단을 사람 손에 이끌려서 내려가는 개의 움직임이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는 것은 인간과 같이 사는 한 ‘개’의 ‘개다움’은 개의 개체 속에서 기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부각되는 것이다.
- 개의 계단을 내려가는 그 자세, 그 움직임의 전부에 즉, 개의 본성이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 속에 실은 인간의 사회와 문화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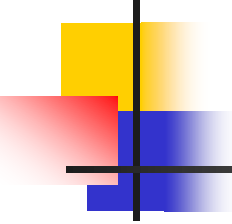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개가 계단을 내려가는 행위는 개라는 개체의 내부에 [생득적 중앙처리 기구]와 같은 실재가 있다고 가정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.
- 또한 본질이 아니라 사회문화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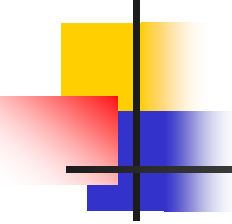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개의 본질은 사회 문화와 불가분한 상호침투의 관계 로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고 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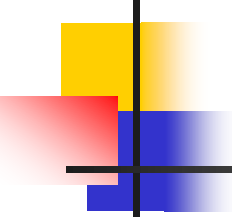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본질이 사회문화적 여러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구축된다는 것은 평소에는 아주 보기 힘들고 자각하기도 힘들다.
- 그 관계의 구축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본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정된 현실이 되는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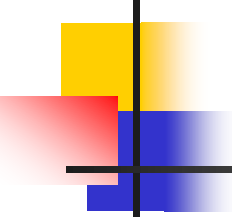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즉 개의 본질이 사회문화적 여러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들개와 우리 속에 갇혀 있는 동물, 식육으로서의 개 등 눈 앞에서 늘 볼 수 있는 익숙한 개와는 다른 개의 모습을 보았을 때 현실의 안정성의 틈 속에서 예감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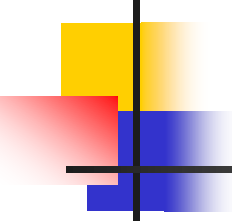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중앙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관계로의 전회

- 인간에게 Pet으로서 키워지는 ‘개’는 인간과 사는 한 매일매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, 자동차의 조수석에 탄다.
- 이러한 일상을 경험하는 한 ‘개’의 본성은 그 개가 인간과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제조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.
- 어디까지가 ‘본질’이고 어디가 ‘사회문화 속 인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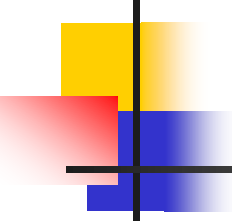
그럼 인간은?

- ‘개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런 존재이다.
- 일상적으로 예컨대 소박하게는 ‘남자아이’는 “ ‘남자아이와 같은 놀이’를 좋아하는구나”와 같은 이야기를 유치원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....
- 이 때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‘남자아이’의 본성과 같은 것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.....



그럼 인간은?

- 실제로 toysrus에서 ‘남자아이’ 코너에 데리고 가거나 조금 거친 놀이를 해도 주의를 주지 않거나, 바지를 늘 착용하는 것.....을 통해서 ‘남자아이’는 ‘남자아이와 같은 놀이’를 하게 된다.
- ‘남자아이’가 바지를 입는 것은 이상하다. 그런 것이 남녀차별이라고 말하고 치마를 입히는 것은 껄적다.
- ‘사상’으로서는 성별의 ‘탈구축’이 가능해도 실제로는 ‘안정된 현실’의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다.



인간의 본질(ESSENTIALS) 은 어디에 있는가?

- 그렇게 생각하면, ‘안정된 현실’은 굳건하다.
- 이 ‘안정된 현실’이 사회에서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, 그러한 현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문화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.
- ‘본질은 없다’라고 탄식하는 ‘탈구축’을 하는 것이 아니라 ‘안정된 현실화’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‘본질’일지도 모른다.